

‘수상한 가수’, ‘복면가왕’ 넘을 新음악예능 될까



인기 스타가 복제 가수 빙의해 대결

반짝·무명·만년 신인 가수 총출동

‘복면가왕’으로 음악 예능에 한 획을 그었던 민철기 PD가 새 예능 ‘수상한 가수’를 선보인다.

기존의 음악 예능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수상한 가수’. 과연 이 프로그램이 재미와 감동을 다 잡아내는 신개념 음악 예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텝포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tvN 새 예능 ‘수상한 가수’ 제작발표회에는 민철기 PD를 비롯해 강호동, 이수근, 하현우, 김형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상한 가수’는 무대 위 인기 스타가 무대 뒤 숨은 실력자와 복제 가수로 빙의해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한때 반짝했던 옛 가수부터 오랫동안 무명의 그늘에 지쳐 포기 직전인 가수, 그리고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던 만년 신인 가수들이 총출동 할 예정. 어딘가에 숨겨진 실력을 있는 가수들을 양지의 무대로 이끌어

내는 책임 육성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MC로는 강호동, 수상한 판정단으로는 이수근, 김형석, 하현우가 합류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 강호동과 이수근은 현재 JTBC ‘하는형님’, tvN ‘신서유기’ 등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믿고 보는 봄비’이며, 김형석과 하현우 또한 각각 KBS2 ‘언니들의 슬랩덩크 시즌2’, MBC ‘복면가왕’ 통해 예능감을 인정받은 민능엔터테이너들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수상한 가수’에서 보여줄 케미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상한 가수’는 민철기 PD가 MBC에서 CJ E&M으로 이직한 뒤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그의 대표작인 ‘복면가왕’과는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수많은 음악 예능과는 어떤 차별점을 지니고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철기 PD는 “대중적

으로 인지도가 낮은데 실력 있는 가

수들을 ‘복면가왕’을 하면서 많이 봤다. 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사실 요즘 ‘프로듀스 101’ 등을 통해 실력은 있지만 인지도가 낮았던 친구들이 조명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저도 음악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렇게 눈여겨 봐왔던 친구들을 대중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라고 기획 의도를 먼저 밝혔다.

이어 ‘복면가왕’과의 차별점에 대해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다. ‘복면가왕’은 ‘가면’이라는 장치를 통해 편견을 없애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수상한 가수’는 인지도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립싱크로 보여주는, 오히려 편견을 싣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상한 가수’를 ‘복면가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이번 ‘수상한 가수’를 통해 첫 음악 예능에 도전한 강호동은 5분만에 출연을 승낙한 이유에 대해 “음악 예능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작진 이야기를 들어보고 꿈을 가진 분들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라고 설명 한 뒤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진

행을 하고 그 긴장감과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가장 섭외가 어려웠다는 국카스텐 하현우는 “PD님이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셨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가수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음악과 인생에 대해 감동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밝혔으며, 이수근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즐거움과 감동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김형석 또한 “숨은 보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힌 상황.

이에 민철기 PD를 비롯한 4인방이 “재미와 감동이 모두 있는, 온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자신한 ‘수상한 가수’가 과연 금요일 밤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가족 예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수상한 가수’ 1회는 기존 70분보다 20분 늘어난 90분 동안 방송되며 14일 저녁 8시 첫 방송된다. 이후 2회부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된다.

블랙핑크, K팝 기록 세운 ‘썸머파워’



위, 음악방송 1위를 기록한 곡들 투끼, ‘휘파람’, ‘불장난’ 등 힙합 색채가 짙은 걸크러쉬 콘셉트로 제2의 2NE1을 연상케 했다.

그러나 ‘마지막처럼’은 블랙핑크가 이전 음악에서 보여준 감성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밝고 시원한 여름 느낌으로 변신을 시도한 곡이다. 블랙핑크가 지금까지 발표한 곡 중 가장 빠르고 신나는 곡으로 블랙핑크만의 어름색을 칠하게 했다. 블랙핑크가 한 가지 색민이 아닌 여러 색깔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지막처럼’은 SBS ‘인기가요’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성공을 거뒀다. 특히 유튜브에 게재된 블랙핑크의 신곡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K팝 남녀 그룹 역대 최단 기간인 20일 만에 6천만뷰를 돌파했고 현재 6천 100만뷰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K팝 그룹 사상 최단 기간.

블랙핑크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1분 기준, 유튜브에 게재된 블랙핑크의 신곡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K팝 남녀 그룹 역대 최단 기간인 20일

여름은 걸그룹의 시즌이다. 청량하고 시원한 콘셉트의 인기 걸그룹이 연달아 앰벌을 발표하면서 무대 위를 쇠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걸그룹 씨스타가 해체하면서 ‘썸머퀸’의 자리가 공백인 상태. 에이핑크, 미마무, 레드벨벳, 블랙핑크 등 걸그룹들이 저마다의 매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걸그룹 블랙핑크 또한 여름을 맞아 시원한 변신을 선보였다.

블랙핑크는 지난 22일 싱글 ‘마지막처럼’을 발표했다. ‘마지막처럼’은 밝고 시원한 여름 느낌의 곡으로 도입부터 중독성 있는 리듬 신스가 귀를 사로잡는 댄스곡이다. 청명한 신스 리듬과 사운드 소스의 화려한 멜로디가 청량감을 자아낸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블랙핑크는 지난해 8월 데뷔 음반 ‘스퀘어원(SQUARE ONE)’과 11월 ‘스퀘어투(SQUARE TWO)’를 발표하고 걸그룹 데뷔 후 최단 시간 음원차트 1

‘브이아이피’, 폭발적 반응…8월 극장가 VIP 될까



영화 ‘브이아이피’가 1차 포스터 및 예고편 공개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세계’ 박훈정 감독의 신작인 ‘브이아이피’는 국정원과 CIA의 기획으로 북에서 온 VIP가 연쇄살

보여주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김종민과 신지, 정준영과 고은이는 각각 17년, 10년 친구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지 남녀 사이의 우정에 대한 새로운 실험으로 많은 궁금증을 모았다.

그리고 그 실험의 대상이 된 주인공들은 바로 연예계의 소문난 절친인 김종민 신지, 10년 지기 정준영 고은아, ‘또오해영’의 예지원 하정민 이재윤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 커플이 대표 신혼여행지인 태국 카오락으로 사전답사를 떠난 모습이 공개됐다.

독특하게 세 명이 떠난 예지원, 하정민, 이재윤 역시 잔뜩 들뜬 모습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남사친여사친’은 새로운 포맷과 함께 재기발랄한 출연자들의 매력으로 첫 방송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기세를 힘입어 3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인 ‘남사친여사친’이 정규 편성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많이 본 무비 클립 1위를 차지하고 전체 누적 조회수 210만으로 화제작의 위엄을 과시했다.

‘브이아이피’는 ‘부당거래’ 각본을 쓰고 ‘신세계’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주특기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이종석이 첫 악역으로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강력한 변신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신세계’ 박훈정 감독과 정동진, 김정민, 박희순 이종석이 만난 ‘브이아이피’가 8월 극장가의 최고의 브이아이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음력 5월 21일)



▶ 36년생 건강에주의. 48년생 밀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9년생 밀음을 아래 덕을 받는다. 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3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8년생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1년생 산행을 삼가라. 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5년생 이거나 싶으면 밀고 나가라. 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40년생 외출을 삼가라. 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42년생 교통사고 조심. 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 78년생 순풍에 둑을 높이 올린다. 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32년생 베푸는 마음을 길러라. 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5년생 밀음을 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돋도 해진다. 58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0년생 손에 수에 조심해야 한다. 82년생 꿈을 접지마라.



▶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를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맘초자 마라.